

⑤을 두고 佛經刊行 佛經諺解事業④에 注力하였던 것이니 刊經都監의 佛經刊行事業에 依하여 世祖八年에 刊行된 妙法蓮華經諺解⑥ 七卷中 하나 인 것 같고 또 이 法華經은 世祖十年에 亦是 刊經都監에서 刊行된 圓覺經諺解⑥와 書體、體裁가 같으며 이것으로 現存하는 法華經諺解 卷四와 卷六⑦에 다시 卷二가 追加된 셈이다.

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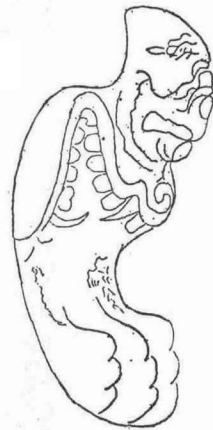
- ① 國寶五〇二號 靑陽長谷寺金銅藥師如來佛坐像
- ② 金剛經一冊·華嚴經一冊·妙法蓮華經(諺解) 一冊·祝願文一幅·至正六年書封筒一枚·至正六年墨書字布片一枚·銀製供養盒子一個·白銅鏡一個·其他數點으로 된 腹藏物이 發見되었음(國立博物館所藏)
- ③ 世祖實錄世祖六年六月十六日條
「初設刊經都監 置都提調·提調·使·副使·判官」
- ④ 刊經都監에서 刊行된 佛經諺解로서는 楞嚴經諺解·法華經諺解·金剛經諺解·阿彌陀經諺解·圓覺經諺解 등이 있다. (서울大學校 國語研究會刊 國語研究第一號 姜信沆「李朝初佛經諺解經緯에 對하여」參照)
- ⑤ 世祖實錄世祖八年九月條
「九月丁巳朔戊午 刊經都監進新刊法華經」
- ⑥ 世祖實錄世祖十年條
「三月丙辰……孝寧大君補嘗離校圓覺經 至是事訖 上御思政」
「四月癸未……圓覺寺成 設慶讚會赴 會僧一百二十八 披覽御定口訣 翻譯圓覺修多羅了義經、飯外護僧二萬、是日幸圓覺寺」
- ⑦ 法華經諺解卷四……方鍾鉉氏藏本 同書卷六 崔鉉培氏藏本(書誌第二卷 第一號金元龍「有刊記佛書目錄初稿」參照)

石獸脚의 一例

金 永 培

公州博物館 遺物倉庫를 整理하다가 石獸脚 하나가 着眼되었다. 이 石彫物은 過去日帝時에 蒐集되었던 것으로서 發見場所나 蒐集經緯가 全히

記錄되지 않아서 알 수 없는데 石獸脚은 花崗石製로서 鬼面에 獸足이 붙어 있는데 거의 完全品이다. 面相은 부릅뜬 눈과 악무른 齒牙는 鬼面의 偉容을 誇示하고 眉間에는 丸形의 光珠를 彫鏤하였으며 足은 五指로 區分되어 있고 面相後面에는 字形의 턱을 만들어서 物件의 받침으로 使用하였던 것이 分明하며 彫刻의 線이 豪活厚重하여 묵직한 安定感을 보여 주고 있다. 用途로서는 石階같은 곳에 裝飾용으로 配置되었던 것으로 推定되며 年代는 相當히 올라 볼 수 있을 듯하고 稀貴한 類例이기로 簡單히 紹介하여 둔다.



側面圖 S=1:3.6

蛟龍山城

申 榮 勳

南原邑에서 보면 북쪽에 密德·福德 兩峰의 蛟龍山이 멀리 보이고 가